



박지훈-양희종 '버저비터 승리의 기쁨' 지난 27일 오후 경기 도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와 고양 캐롯 점퍼스 경기, 안양 KGC 박지훈이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며 84:02로 승리, 양희종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전남드래곤즈, 전승민 완전영입

임찬울 재계약·전남과 4번째 시즌 이어가



전남드래곤즈는 2022시즌 팽활 약했던 전승민(22)을 완전영입하고 임찬울(28)과 재계약했다고 28일 공식발표했다. 전남은 2022시즌 22세 이하(U22) 선수로 전승민을 낙점, 성남에서 입대영입했다. 전승민은 정규리그에서 34경기에 출전해 3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본인의 실력을 입증했다. 또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무대에서도 젊은 패기와 볼 배급 능력으로 K리그와 한국축구의 미래를 밝혔다. 임찬울은 무릎 부상으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재합을 거쳤지만 복귀에 성공했다. 2022시즌 임찬울은 정규리그에서 29경기 출전, 5득점 5도움으로 두자리수 공격포인트를 달성했으며 전남의 측면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임찬울은 전남과의 재계약을 체결하며 전남과의 4번째 시즌을 이어가게 됐다. /광양=조순의 기자

황선우 美매체 선정 '올해 亞 남자선수'

올해 톱코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은메달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는 2연패 달성

미국 수영 전문 매체가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19·강원도청)를 올해 아시아 최고 남자 선수로 뽑았다.

수영 전문 매체인 스위스웜(SwimSwam)은 28일(한국시간) "황선우를 2022 올해의 아시아 남자 수영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황선우가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올해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

황선우는 올해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 톱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47의 한국신기록을 써내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경영 선수가 톱코스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오른 것은 2011년 상하이 대회 박태환의 자유형 400m 금메달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자유형 200m로 범위를 좁히면 2007년 벨버튼 대회 박태환의 동메달 이후 15년 만의 메달이고, 한국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이다.

스위스웜은 한국 남자 자유형 200m 역대 기록 상위 10위 내에 황

선우의 기록이 4개, 박태환의 기록이 6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 한국기록 보유자가 한국 수영의 유일한 올림픽 메달리스트(금 1개·은 3개)인 박태환과 황선우의 시대가 겹쳐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황선우는 쇼트코스(25m)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선보였다.

그는 이달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22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39초72의 아시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올해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이전까지 쇼트코스 남자 자유형 200m 한국 및 아시아 기록은 박태환이 2016년 세계선수권에서 기록한 1분41초03이었다.

올해 세계선수권 계영 800m 결승에서 첫 영자로 나서 한국 및 아시아 기록을 1분40초99로 단축한 황선우는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이를 만에 이 기록을 1초27 줄였다.

1분39초72는 파울 비터만(독일)이 2009년 11월 경영 월드컵에서 작성한 세계 기록(1분39초37)에 불과 0.35초 뒤쳐진 기록이다.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금메달을 차지한 황선우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역대 3위 기록이기도 하다. 국제수영연맹이 전신수영복 착용을 금지한 2010년 이후로는 야닉 아벨(프랑스)

이 2012년 자국 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1분39초70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기록이다. /뉴시스

프로축구 광주, 알바니아 출신 winger '아사니' 영입

아사니 "아시아 무대에서 첫 도전, 나의 능력 보여줄 것"



새 시즌 프로축구 K리그1(1부)에서 경쟁할 광주FC가 알바니아 출신 winger 아사니(27)를 영입했다.

광주 구단은 28일 "팀 공격을 이끌 알바니아 출신 공격수 아사니를 데

려왔다"고 발표했다.

175cm 68kg의 날렵한 신체 조건을 자랑하는 아사니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공간 침투가 장점인 측면 공격수다. 원발 킥이 좋고, 센스와 마무

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알바니아 부도 사이에서 마케도니아 태생인 그는 2013~2014시즌 마케도니아 최상위 리그인 FK 바르다르에서 데뷔했다.

팀의 리그 2연패에 기여하며 주목 받았고, 가능성을 인정받아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연령별 대표팀에서 뛰었다. 이후 알바니아, 스웨덴, 헝가리 리그에서 뛴 아사니는 광주를 통해 아시아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사니는 "아시아에서의 첫 도전을 1부리그에서 새로운 도약을 노리는 광주에서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광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세계육상연맹 우상혁·바심, 2022년 스타

세계육상연맹(IAAF)이 올해 세계적인 점퍼로 올라선 우상혁(26)의 활약을 조명했다.

세계육상연맹은 28일(한국시간) 2022년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등 도약 종목을 돌아봤다. 높이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중 하나는 우상혁이었다.

세계육상연맹은 "우상혁과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은 2022년의 스타였다"며 "우상혁은 실내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고, 바심은 실외에서 계속 군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상혁이 지난 2월6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대회에서 2m36을 넘고 한국 최초로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짚었다.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JOCIA 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